

요동지역의 고구려부흥운동과 검모잠

김 강 훈*

1. 머리말
2. 중국 측 사서의 검모잠 관련 기사 재검토
3. 검모잠의 거병 배경과 기반
4. 당군의 대응과 요동·요서지역 고구려 유민의 동향
5. 맺음말

1. 머리말

『三國史記』, 『日本書紀』, 『唐書』 등 여러 史書에는 백제부흥운동을 일으킨 인물이 여럿 등장한다.¹⁾ 그에 비해 고구려 멸망 후 부흥운동을 전개한 인물로는 劍牟岑, 安勝²⁾, 高延武만이 확인될 뿐

* 경북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박사과정

1) 복신, 도침, 흑치상지, 사타상여, 여자진, 정무 등이 대표적이다. 백제부흥운동에 관해서는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 2005 참조.

2) 중국 측 기록에서 劍牟岑은 鉗牟岑, 劍牟岑 등으로, 安勝은 安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료를 직접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존중하여 劍牟

이며³⁾ 이들의 활동은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검모잠과 안승은 고구려부흥운동의 軌跡을 추적하는데 주요한 인물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⁴⁾ 그들의 활동이 韓·中 양측 사서에 남아 있으며, 당군의 대응조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측 사서에서 검모잠은 고구려 재건을 꾀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당이 검모잠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두 개의 行軍을 파견했다는 점에서 당시 사건의 과급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통해 고구려부흥운동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가 가능해졌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모잠의 거병 및 활동 지역을 한반도 서북부로 비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특히 남하 이전 즉 거병 초기의 활동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검모잠이 殘民을 수합하여 南下를 시작한 窮牟城을 요동지역의 蓋牟城으로 추정한 연구가 발표되어⁵⁾ 새로운 시각에서 고구려부흥운동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본고는

岑과 安勝으로 통일하여 지칭하겠다.

- 3) 陽玄基 墓誌에는 그가 東柵州都督府長史로 있던 시절 高定問 등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를 통해 문헌에는 전하지 않지만 고구려 부흥을 꾀한 인물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趙君平·趙文成 編, 「大周故左羽林衛將軍上柱國定陽郡開國公右北平陽君墓誌」, 『河洛墓刻拾零』, 北京圖書館出版社, 2007, 173~174 쪽 “總章元年 授鹿陵府長上折衝 仍檢校東柵州都督府長史 誅反首領高定問等 封定陽郡公 食邑二千戶”.
- 4) 검모잠과 안승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부흥운동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池內宏,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史研究』 上世二冊, 吉川弘文館, 1960; 李丙燾, 「高句麗의 一部遺民에 대한 唐의 抽戶政策」,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村上四男, 「新羅と小高句麗國」, 『朝鮮學報』 37-38, 1966; 전준현, 「670년에 재건된 ‘高句麗國’에 대한 연구」, 『역사과학』 82-2, 1982; 梁炳龍, 「羅唐戰爭 進行過程에 보이는 高句麗遺民의 對唐戰爭」, 『史叢』 46, 1997; 임기환, 「고구려 유민의 활동과 보덕국」,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강경구, 「高句麗 復興運動의 新考察」, 『韓國上古史學報』 47, 2005; 이상훈, 「검모잠의 최초 거병지 검토」,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운교수정년기념논총 2)』, 사계절, 2014; 최재도, 「漢城의 高句麗國 再檢討」, 『동북아역사논총』 47, 2015.
- 5) 이상훈, 위의 논문, 72~74쪽.

이를 바탕으로 요동지역⁶⁾의 고구려부흥운동이라는 시각에서 검모잠의 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중국 측 사서의 검모잠 관련 기사 재검토

668년 9월 평양성이 함락되고, 10월 보장왕을 비롯한 고구려 지배층은 당으로 끌려갔다.⁷⁾ 당 고종의 명에 따라 李勣은 이들을 먼저 당 태종의 무덤인 昭陵에 바친 후 이어서 장안으로 들어가 太廟에 바쳤다. 12월 당 고종은 含元殿에서 이들에 대해 상벌을 내리는 한편 고구려 故地에 대한 당의 지배정책을 결정하였다. 5부 176성 69만호로 구성되어 있던 고구려 영역을 9도독부 42주 100현으로 개편하면서 이를 총괄하는 안동도호부를 평양성에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고종은 南郊에서 고구려를 평정했음을 알리는 제사를 지내고 마지막으로 태묘를 배알하면서 고구려 戰役을 마무리하는 의례⁸⁾를 마쳤다.

6) 한국학계에 사용하는 고구려시기 '요동'의 범위는 과거 요동군 영역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요하 이동 지역을 주로 일컫고 있지만, 그 지리적 범위는 불분명하다 (임기환,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高句麗渤海研究』 45, 2013, 79쪽). 이는 요동의 개념이 중원 왕조의 지방행정조직이나 군정 기관 혹은 그 관할범위를 가리키는 동시에 산해관 이동, 한반도 북부 이서의 광범위한 지역을 지칭하기 때문이다(김한규, 『요동사』, 문학파지성사, 2004, 49~61쪽). 본고에서는 遼河 以東에서 鴨綠江 以北에 이르는 지역 중에서 고구려 초기 중심지인 환인·집안지역을 제외한 지리적 범위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對唐戰爭 과정에서 요동지역을 돌파한 당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압록강이 주요 방어선의 기능을 하였으며(『三國史記』 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20年 9月), 또한 고구려 후기 국내성이 別都로 지칭되는(『新唐書』 卷20, 列傳145, 東夷 高麗 “又有國內城漢城號別都”) 등 압록강 중류 일대 지역은 요동지역과 지방제도 및 군사방어체계에서 별도로 운영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7) 고구려 멸망과 이후 당이 고구려 戰役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資治通鑑』 卷201, 唐紀17, 高宗 總章 元年 9·10·12月條 및 『唐會要』 卷14, 獻俘 참조.

고구려 멸망 이후 유민들이 당의 지배정책에 맞서 봉기한 시점과 지역을 명확히 보여주는 기록은 없다. 다만 평양에 안동도호부가 설치되고 薛仁貴가 檢校安東都護로서 군사 2만을 거느리고 鎮撫하게 되면서 고구려 유민의 저항이 촉발된 것으로 여겨진다.⁹⁾ 이후 고구려 유민 중에 흩어지고 도망가는 자가 상당수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신라, 일본 열도 등으로 이주했다 기보다는 아직 당에 항복하지 않는 성이나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당이 본격적으로 고구려 고지 지배를 시도하자 유민들의 반당항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669년 정월 당의 승려 法安이 신라에 와서 자석을 구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¹⁰⁾ 당시 승려들이 첩보 활동에 활용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법안이 파견된 목적을 정보 수집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¹¹⁾ 다만 당이 요구한 물품이 자석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파견 목적을 생각해볼 수 있다. 자석은 쇠붙이에 상하여 내장이 나왔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한 발열 등의 증상에 사용되었다.¹²⁾ 지혈제의 일종인 자석을 요구했다는

8) 戰場에서 돌아와 太廟와 太社에 승리를 보고하는 동시에 俘虜와 진리품을 바치는 의례를 獻俘禮라고 한다. 최근 唐代 헌부례에 대한 연구로는 王博, 唐代軍禮における「獻俘禮」の基本構造, 『史觀』 167, 2012와 李正範, 「唐 後期 獻俘禮의 거행과 황제권력의 顯示」, 『서울大 東洋史學科論集』 37, 2013이 있다.

9) 『舊唐書』 卷199, 列傳149, 東夷 高麗 “遣左武衛將軍薛仁貴總兵鎮之 其後頗有逃散”.

10)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9年 正月 “唐僧法安來傳天子命求磁石”.

11) 이상훈, 「羅唐戰爭의 軍事的 原因과 新羅의 戰爭準備」, 『역사와 경계』 79, 2011, 21~22쪽; 『나당전쟁연구』, 주유성, 2012, 80쪽.

12) 이현숙, 「7세기 신라 통일전쟁과 전염병」, 『역사와 현실』 47, 2003, 140~142쪽. 자석의 용도를 서해 횡단에 필요한 항해용 나침반 제작이라고 보기도 한다(최근식, 『신라해양사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198~199쪽). 그러나 황해를 횡단하는 항로는 654년 倭의 遣唐使가 新羅道를 통해 萊州에 이르렀고(『日本書紀』 卷25, 孝德天皇 白雉 5年 2月), 660년 13만 명에 이르는 당군이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이용(『三國史記』 卷5,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7年 3·5月)할 정도로 이미 6세기 중반에 항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었다(고경석,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 연구, 『신라사학보』 21, 2011, 114~116쪽).

것은 당군이 전투에서 피해를 입어 부상자가 상당수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당시 당이 한반도 이외의 여러 곳에서 전쟁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지혈제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¹³⁾ 그러나 동돌궐과 서돌궐이 각각 630년, 659년 당의 공격을 받아 붕괴되어 羈靡支配를 받고 있었으며, 토번과 당이 본격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한 시기는 670년 4월 토번이 安西 4鎮을 함락하면서부터였다.¹⁴⁾ 그러므로 당이 자석을 필요로 했던 전장은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승려 법안은 이후 溟江 이남에서 검모잠에게 살해되었다.¹⁵⁾ 이는 법안이 신라에 자석을 요구한 후에 곧바로 당으로 돌아가지 않고 평양으로 가서 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법안은 안동도호부와 관련해 모종의 임무를 가지고 파견되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으며, 그가 요구했던 자석은 당군이 고구려 고지에서 소비해야 할 약품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혈제인 자석을 요구할 정도로 당군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존재는 고구려부흥세력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669년 1월경에 당의 지배에 맞선 고구려인의 저항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당군과 고구려부흥군 사이에 전투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이 고구려 고지를 안동도호부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 地理志에는 鴨綠水 以北의 현황을 기록하면서 여러 성들을 未降城·已降城·逃城·打得城으로 분류하고 있다.¹⁶⁾ 이에 대해서 667년 2월에서 9월 사이에 당군이 작성한 戰況表라는 견해가 일찍이 제기되었는데, 未降城에 기재되어 있는 新城이 667년

13) 이현숙, 앞의 논문, 140쪽.

14) 『新唐書』 卷215, 列傳140 突厥; 『資治通鑑』 卷201, 唐紀17, 高宗 咸亨 元年 4月.

15) 『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6月.

16) 『三國史記』 卷37, 雜志6, 地理4 “鴨渌水以北 未降十一城 … 鴨渌水以北 已降城十一 … 鴨渌以北逃城七 … 鴨渌以北打得城三 …”.

2월 당군에 포위되었다가 9월에 함락되었기 때문이다.¹⁷⁾ 그런데 已降城에 기재되어 있는 南蘇城은 淵南生이 당에 투항하면서 함께 귀부하였다가, 667년 다시 고구려 측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리고 신성이 함락된 이후 契苾何力이 이끄는 당군에게 재차 점령되었다.¹⁸⁾ 압록수 이북의 현황을 기록한 자료가 667년 2~9월에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던 신성과 남소성이 각각 未降城과 已降城으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668년 이적이 이끄는 당군의 주력부대는 신성을 떠나 평양성으로 진공하였는데, 이 때 요동성, 안시성, 오골성 등을 공략해야만 평양성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는 대부분의 성이 당군에 항복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요동성, 안시성, 오골성은 已降城에 기재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未降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삼국사기』 지리지의 압록수 이북 현황을 기록한 자료는 고구려 멸망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자료는 總章 2년(669) 2월이라는 시기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구려 멸망 이후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¹⁹⁾ 즉, 고구려 멸망 후 요동지역에서 다수의 성이 안동도호부의 지배를 이탈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미항성에 기재된 성들은 지방 지배의 주요 거점이자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11개의 미항성 중 요동

17) 池内宏, 高句麗討滅の役に於ける唐軍の行動, 앞의 책, 335~336쪽;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223~225쪽.

18) 『新唐書』 卷111, 列傳35, 諸夷蕃將 契苾何力 “勣已拔新城 留何力守 時高麗兵十五萬屯遼水 引靺鞨數萬衆據南蘇城 何力奮擊破 斬首萬級 乘勝進拔八城”.

19) 김강훈, 679~681년 寶藏王의 高句麗 復興運動, 『歷史教育論集』 50, 2013, 315~316쪽 참조. 이는 압록수 이북의 현황을 기록한 자료가 669년 2월에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新城·遼東城·屋城·多伐嶽城은 최고위 지방관이 주재하는 곳이자 요동지역에서 평양에 이르는 주요 교통로 상에 위치하고 있었다.²⁰⁾ 그리고安市城은 645년 당군의 침입을 결정적으로 물리쳤던 곳이자, 고구려 멸망 이후에는 671년 당군에 점령되기까지 고구려부흥운동이 발생한 지역이었다.²¹⁾ 압록수 이북 지역에 아직 항복하지 않은 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요동지역에서 당의 지배에 맞선 저항이 격렬히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고구려 유민 중 離叛者가 다수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당은 669년 5월 고구려 유민에 대한 대규모 사민을 실시하였다.²²⁾ 부흥운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세력을 당 內地로 사민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반당항쟁의 사회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사민의 경로를 파악해 보면 당시 고구려 부흥을 위한 움직임이 어느 지역에서 활발히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해로는 萊州를, 육로는 營州를 거쳤는데, 이 중 영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주는 중원세력이 고구려의 요동지역을 위협하는 거점이자 동시에 중원세력과 동북아 제종족 간의 교역 및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²³⁾ 요동지역에 거주하던 유민은 영주를 경유하여 사민되었다.²⁴⁾ 이는 고구려 멸망 후 요동지역에서 당군에 맞선 저항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20) 노태돈, 앞의 책, 231~242쪽.

21) 『資治通鑑』卷198, 唐紀14, 太宗 貞觀 19年 9月; 『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 咸亨 2年 7月 “高侃破高麗餘衆於安市城”.

22) 『舊唐書』卷5, 本紀5, 高宗下 總章 2年 5月 “移高麗戶二萬八千二百 車一千八十乘 牛三千三百頭 馬二千九百匹 駝六十頭 將入內地 萊營二州般次發遣 量配於江淮以南及山南并涼以西諸州空閑處安置”.

23) 이성제, 고구려와契丹의 관계-對隋·唐戰爭期的 動向과 그 意味-, 『北方史論叢』 5, 2005, 151쪽.

24) 日野開三郎, 『小高句麗國の研究』, 三一書房, 1984, 59~62쪽.

약 13만 명²⁵⁾에 이르는 고구려 유민이 당 내지로 사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예상과 달리 반당항쟁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검모잠이 거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병 시기와 배경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측 사서에 기록된 검모잠 관련 기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資治通鑑』, 『唐會要』, 『新唐書』에는 검모잠에 관해 다음의 기록이 남아 있다.

- A-①. 庚午 … 高麗 酋長 劍牟岑이 반란을 일으켜 高藏의 외손 安舜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左監門大將軍 高侃을 東州道行軍總管으로 삼아 병사를 보내 토벌하게 하였다. 안순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도망갔다(『資治通鑑』 卷201, 唐紀17, 高宗 咸亨 元年 4月).
- A-②. 고려의 남은 무리 중 추장 검모잠이라는 자가 있어서 무리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 고장의 외손 안순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조칙을 내려 左衛大將軍 고간에게 토벌하여 평정하게 하였다(『唐會要』 卷73, 安東都護府 咸亨 元年 4月).
- A-③. 庚午 … 고려 추장 鉗牟岑이 반란을 일으켜 변경을 침입하니, 左監門衛大將軍 高侃을 東州道行軍總管으로 삼고 右領軍衛大將軍 이근행을 燕山道行軍總管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다(『新唐書』 卷3, 本紀3, 高宗 咸亨 元年 4月).

사료 A-①, ②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670년 4월 검모잠이 거병하여 안순을 국왕으로 세우자, 당은 고간과 이근행을 행군총관으로 임명하여 반란 진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안순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도망가면서 검모잠의 거병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와 달리 A-③에서는 검모잠이 거병하고 당의 변경을 침입

25) 문무왕 6년 연정토가 763호 3,543명을 거느리고 신라에 항복하는 기록(『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6年 12月)에 따라 1호당 4.64명으로 환산하면, 약 13만 명이 당 내지로 사민되었다고 볼 수 있다(李文基, 「墓誌로 본 在唐 高句麗 遺民의 祖先意識의 變化」 『大丘史學』 100, 2010, 61쪽).

했다고 언급하고 있을 뿐이며 안승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A-①, ②, ③ 모두 검모잠이 어떤 이유로 거병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A-①에서는 검모잠의 거병, 안승 즉위, 당 행군의 파견, 검모잠 피살이 모두 670년 4월조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들 사건이 같은 달에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후 1~2년의 사건을 일괄 기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²⁶⁾ 그렇다면 먼저 670년 4월조에 기술된 각각의 사안들이 발생한 시기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표 1〉 중국 측 기록의 검모잠 관련 사건 개요

출전	사건 개요
자치통감 (A-①)	검모잠 거병 → 안승 즉위 → 당 행군 파견 → 검모잠 피살
당회요 (A-②)	검모잠 거병 → 안승 즉위 → 당 행군 파견
신당서 본기 (A-③)	검모잠 거병 → 변경 침입 → 당 행군 파견

이를 위해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검모잠 관련 기사를 검토하고자 한다.²⁷⁾ 이를 통해 안승의 즉위와 검모잠 피살 시기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B-①. 고구려 水臨城人 牟岑 大兄이 殘民을 모아 窮牟城에서부터 溟江 남쪽에 이르러 당 관인과 승려 법안 등을 죽이고 신라로 향했다. 서해 史治島에 이르러 고구려 大臣 淵淨土의 아들 안승을 만나 漢城 안으로 맞아

26) 전준현, 앞의 논문, 37쪽.

27) 존·씨·재미슨은 670년대 한반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관해서 중국 측 사서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한데 비해 『삼국사기』의 기록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다고 평가하였다(존·씨·재미슨, 羅唐同盟의 瓦解-韓中記事 取舍의 比較-, 『歷史學報』 44, 1969).

들여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다. 小兄 多式 등을 보내 다음과 같이 슬피 고하였다. “... 지금 저희들은 본국의 귀족 안승을 맞아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 왕은 그들을 나라 서쪽 金馬渚에 살게 하였다(『三國史記』 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6月).

B-②. 대왕이 답서에서 말하였다. ... 함형 원년 6월에 이르러 고구려가 모반하여 漢官을 모두 죽였습니다(『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1年 7月).

사료 B-①은 검모잠이 小兄 多式을 신라에 파견하여 안승의 즉위를 알리고 신라에 원조를 요청하는 외교문서를 전달한 것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결과가 함께 서술된 것으로 여겨지는데²⁸⁾, 내용상 여러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고 그 시점도 차이가 있다고 추정된다.²⁹⁾ 먼저, 670년 6월 신라로 보낸 외교문서에 이미 안승을 왕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안승의 즉위 시점 하한이 6월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안승의 즉위 시점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는데 유의할 사료가 B-②인데, 671년 문무왕이 당의 총관 설인귀에게 보낸 서신 중 일부이다. 이는 신라가 당에 반역하였다는 내용을 담은 설인귀의 서신을 반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신라 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종의 외교문서로서 사실 관계에서는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³⁰⁾ B-②에서 신라는 웅진도독부와 의 갈등 양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구려가 함형 원년(670) 6월에 漢官을 모두 죽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B-①에서 검모잠이 패강 남쪽에 이르러 당 관인과 승려 법안을 죽였다는 것과 동일한 사건을 가리킨다.³¹⁾ 검모잠이 당 관리를

28) 이정빈, 「고연무의 고구려 부흥군과 부흥운동의 전개」, 『역사와 현실』 72, 2009, 146쪽.

29) 최재도, 앞의 논문, 145쪽.

30) 答薛仁貴書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박현숙, 「답설인귀서」, 나당전쟁기 신라 외교의 표상, 『내일을 여는 역사』 10, 2002와 김진한, 「답설인귀서」에 보이는 신라·당 밀약 기사의 사료적 검토, 『인문논총』 71-1, 2014 참조.

죽이고 안승을 임금으로 세웠으므로 안승 즉위 시기의 상한은 670년 6월이 된다. 결국 B-①에서 검모잠은 당 관인과 승려 범안 살해, 안승 옹립, 신라로 다식 파견 순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중 첫 번째, 세 번째가 모두 670년 6월에 일어났으므로 안승의 즉위 시기는 670년 6월로 확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안승이 검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來投한 시점은 언제일까. 이에 대해서는 대체로 670년 7월 말로 보는데,³²⁾ 최근에는 한성 일대의 고구려부흥세력이 존속했던 시기를 672년 말~673년 초³³⁾, 673년 윤5월경³⁴⁾, 673년 말~674년 초³⁵⁾까지로 보는 입장에서 안승의 내투시기를 한성 일대 고구려부흥세력의 소멸과 동일하게 보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지 간에 검모잠이 안승을 임금으로 세운 후 어느 시기에 안승이 검모잠을 죽였다고 보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검모잠이 피살당한 시점은 안승이 즉위한 670년 6월 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당 조정이 행군을 파견한 시점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 사료에 주목하고자 한다.

B-③. 함형 원년 4월 그 추장 鉗牟岑이 반란을 일으켜 安舜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庚午 조칙을 내려 고간을 동주도, 이근행을 연산도행군총관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다³⁶⁾(『玉海』 卷191, 兵捷 露布 三).

31) 양병룡, 앞의 논문, 51쪽; 金壽泰, 「統一期 新羅의 高句麗遺民支配」,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一潮閣, 1994, 340쪽; 최제도, 앞의 논문, 145~146쪽.

32) 池內宏, 앞의 책, 429쪽.

33) 임기환, 앞의 책, 331~333쪽.

34) 최제도, 앞의 논문, 159~160쪽. 조선 후기 편찬된 『東史約』에서 석문 전투 이후 어느 시점에 안승이 검모잠을 죽였다고 한 기사를 근거로 검모잠 피살 시기를 672년 8월 이후로 추정하였다.

35) 이정빈, 앞의 논문, 151~153쪽. 검모잠이 피살된 시기를 670년 9월~12월 사이로 추정했다.

36) “咸亨元年四月 其酋鉗牟岑反 立安舜爲王 庚午詔高侃爲東州道 李謹行燕山道行軍總管討之”.

상기 사료는 宋代의 대표적인 類書로서 평가 받는 『玉海』³⁷⁾에서 당이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내용을 담은 자료를 취합·정리한 ‘唐遼東道行臺大總管李勣俘高麗 獻俘昭陵 檄高麗 含元殿數俘’조의 夾註 중 일부이다. 안동도호부 설치를 설명하는 본문에 당의 지배에 맞선 고구려 유민의 활동을 협주로 덧붙이면서, 함형 원년 4월 庚午에 내려진 조치가 당 행군 파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670년 4월의 시점에는 검모잠이 이끄는 고구려부흥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당 조정이 행군 파견을 결정하였던 것이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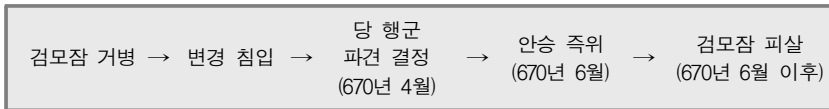
이러한 이해가 옳다면 A-①, ②에서 함형 원년(670) 4월조에 670년 6월 이루어진 안승 즉위와 그 이후 발생한 검모잠 피살이 함께 기술된 것은 杜撰이며, 검모잠과 관련한 사건들이 시간의 흐름과 맞지 않게 뒤섞여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이 행군을 파견하여 검모잠 세력에 대해 진압에 나선 이유도 다르게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검모잠이 안승을 왕으로 세우고 고구려를 재건하는데 성공하자, 이에 대응하여 행군을 파견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잘못된 것이다. 당이 행군 파견을 결정한 이후에 안승이 국왕으로 즉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이 행군을

37) 『玉海』은 송대 대표적인 類書로서 王應麟이 천자의 조칙과 같은 공용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制度典故를 수집,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전의 유서에 비해 서술이 체계적이며 각 항목의 서술에서 여러 문헌을 상호 비교하여 고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고증이 학문의 형식을 갖춘 것이 왕응린부터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卓用國, 『中國史學史大要』, 探求堂, 1986, 114~116쪽; 國史編纂委員會 編, 叢書類 解題: 『玉海』, 『韓國古代史料集成-中國篇-』 5, 學研文化社, 2006, 23~25쪽).

38) 670년 4월 경오에 행군 파견이 결정되었다면 실제로 이들이 파견된 시기는 이보다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당대 행군은 府兵, 兵募, 蕃兵으로 구성되었는데, 부병만으로는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하기 어려웠고 결국 각 州에 할당하여 주의 부담과 책임 하에 徵募·差遣된 자들이 병모가 행군의 주력이 되었다(菊池英夫, 「節度使制確立以前における「軍」制度の展開(續編)」, 『東洋學報』 45-1, 1962, 33~43쪽; 孫繼民, 『唐代行軍制度研究』, 文津出版社, 1995, 83~119쪽). 그러므로 병모의 징발, 부대편성, 부대이동 등에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과거한 이유는 『신당서』 본기(A-③)에 기록되어 있듯이 ‘검모잠이 변경을 침입’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측 사서에 기록된 검모잠 관련 사건들은 다음의 순서로 재구성할 수 있다.

〈표 2〉 검모잠 관련 사건 개요



3. 검모잠의 거병 배경과 기반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모잠 관련 사건들을 재조정하게 된다면 최초로 거병한 시기는 언제로 추정할 수 있을까.³⁹⁾ 당이 행군 파견을 결정한 시기가 670년 4월이라면 검모잠 세력이 당의 변경을 침입한 시기는 이보다 이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고구려 고지에서 당의 수도 장안까지 거리와 당시 문서 전달 속도를 고려해야 한다. 당대 문서 전달 속도는 최대 1일 500리였지만 실제로는

39) 검모잠의 거병 시기를 669년 초로 보는 견해가 있다. 당이 669년 5월 사민을 실시하면서 이유로 내세운 離叛者 중 대표적인 존재로 검모잠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李丙燾, 앞의 책, 458~460쪽; 전준현, 앞의 논문, 37쪽; 손영중, 『고구려사』 2, 백산자료원, 1997, 253쪽). 그러나 『신당서』 고려전에 의하면 사민이 실시된 후에 검모잠의 거병이 있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따르기 어렵다(이정빈, 앞의 논문, 139쪽). 또는 안동도호 설인귀가 669년 평양에서 新城으로 이동하자 평양 일대에 군사적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 틈을 이용하여 검모잠이 거병하였다고 보기도 한다(村上四男, 앞의 논문, 40쪽). 이는 검모잠의 거병 지역을 평양 일대로 보는 시각에 의한 것인데, 후술하듯이 검모잠은 요동지역에서 거병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역시 이를 따르기는 어렵다.

1일 백수십리 정도였다.⁴⁰⁾ 요서지역의 營州에서 平州, 幽州, 定州, 衛州, 東都 등을 거쳐 장안까지 이르는 노선이 3,745리였으므로 평균적인 문서 전달 속도로 계산하면 약 25일 정도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¹⁾ 그리고 당 조정에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시간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렇다면 검모잠 세력이 당의 변경을 침입한 시기는 670년 초로 비정할 수 있다.

검모잠이 거병한 시기와 당의 변경을 침입한 시기 간의 시간적 차이도 존재한다. 검모잠이 처음 거병하였을 때는 그 세력의 규모가 크지 않았고 당에 위협을 가할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동도 호부 자체 병력을 활용하여 진압에 나섰다. 그런데 검모잠 세력이 변경을 침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당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정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검모잠이 거병하고 변경을 침입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C. 총장 2년(669) 고구려민 3만명을 江淮와 山南으로 옮겼다. 大長 鉞牟岑이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高]藏의 외손 安舜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고간을 동주도, 이근행을 연산도행군총관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다. 사평태상백 楊昉을 보내어 도망가고 남은 무리를 불러들이게 하였다. 안순이 鉞牟岑을 죽이고 신라로 도망갔다. 고간이 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주로

40) 中村裕一, 「王言の公布」, 『隋唐王言の研究』, 汲古書院, 2003, 202~220쪽.

41) 營州에서 장안까지 이르는 경로와 里數는 김성한, 「唐 후기 각 州에서 東都를 거쳐 京師로 가는 교통노선」, 『中國古中世史研究』 21, 2009, 401~402쪽 참조. 670년 4월 토변이 白州 등 서역 18州와 龜茲의 撥換城을 함락하자 당은 안서 4진을 폐지하였다(『舊唐書』 卷5, 本紀5, 高宗 咸亨 元年 4月). 劉安志는 18주·말환성과 장안 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함락 소식이 전해지는데 빨라도 1달 정도가 걸린다고 보고, 토변이 그곳을 함락시킨 시기는 670년 2월말 혹은 3월초였으며, 4월에는 안서 4진 폐지를 결정했다고 보았다(劉安志, 「從吐魯番出土文書看唐高宗咸亨年間的西域政局」,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18, 2001, 118쪽).

웁기고 반란병을 안시성에서 격파하였다. 또 천산에서 쳐부수고 신라의 구원병 2천명을 사로잡았다. 이근행이 發盧河에서 격파하고 다시 싸워 포로와 목 벤 수가 만에 이르렀다. 이에 평양의 패잔병들이 다시 軍列을 정비할 수 없게 되자, 함께 신라로 도망갔다. 그리하여 4년 만에 평정하였다 (『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위 사료는 안동도호부 설치 이후 고구려부흥운동의 발생과 당의 진압 과정이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 당이 4년 만에 고구려부흥운동을 평정했다고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근행이 發盧河에서 승리하면서 고구려부흥세력이 신라로 도망가고 부흥운동이 소멸하는 시기는 673년 윤5월이었다.⁴²⁾ 그러므로 당이 인식했던 고구려부흥운동의 시작은 이로부터 4년 전, 즉 669년 5월에 실시된 사민이 된다. 여기서 4년 만에 ‘평정’했다는 의미는 고구려부흥운동 전반을 가리키지만, 평양의 패잔병[平壤痍殘]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평정의 최종 목적은 검모잠과 안승 세력 진압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결국 사료 C는 검모잠의 거병과 남하 이후의 행적 그리고 검모잠 사후 잔여 세력이 펼친 부흥운동의 움직임을 기술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검모잠의 거병에 앞서 기술되어 있는 669년 사민 기사는 검모잠이 거병하게 된 배경을 서술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의 사민은 고구려 유민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고, 그 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상당한 저항이 촉발되었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사민의 대상이 정치·경제적으로 상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항은 더욱 강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구려 고지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세력

42) 『資治通鑑』 卷202, 唐紀18, 高宗 咸亨 4年 閏5月 “燕山道總管右領軍大將軍李謹行大破高麗叛者於瓠蘆河之西 俘獲數千人 餘衆皆奔新羅”.

43) 이정빈, 앞의 논문, 149~150쪽.

들이 사민에 맞서 거병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 중 하나가 검모잠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⁴⁴⁾

다음으로 검모잠이 거병할 수 있었던 사회적, 군사적 기반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대체로 검모잠을 지방 출신의 중급 귀족으로 파악하고 있다.⁴⁵⁾ 이는 그가 水臨城 출신으로서 신라로 남하할 당시 소지한 관등이 大兄이었기 때문이다(B-①). 먼저 수립성은 구체적인 위치를 비정하기 어려운데, B-① 외에는 검모잠의 출신 지역을 말해주는 기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어의상의 유사함을 근거로 수립성을 津臨城(현 파주시 군내면)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있다.⁴⁶⁾ 그러나 이는 검모잠이 부흥운동을 펼친 지역을 대동강 일대로 보는 입장에 기반하여 한반도 서북부 일대에서 수립성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검모잠의 거병 지역이 요동 일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립성 또한 요동지역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수립성으로 비정할 수 있는

44) 일찍이 陳寅恪은 당대 국제관계를 당과 주변 종족·국가 간의 단선적 관계가 아닌 다수의 종족·국가 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의 국내의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국가로 토번을 언급하였는데, 토번이 강성하여 서북지역에서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면 당은 동북지역에서 소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다(陳寅恪,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與內政之關係」, 『隋唐制度淵源略論稿 唐代政治史述論稿』, 三聯書店, 2004, 345~346쪽). 최근 670년 4월 안동도호 설인귀가 토번토벌군의 主將으로 서방으로 이동하여 東方에서 군사적 방비가 약해진 틈을 타 검모잠이 거병했다고 보는 주장이 나왔는데(菅沼愛語, 『7世紀後半の東部ユーラシア諸國の自立への動き』, 『7世紀後半から8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の國際情勢とその推移』, 溪水社, 2013, 36쪽), 이는 陳寅恪의 학설이 현재에도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당의 대외 정책에서 토번이 주요 변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검모잠의 거병과 당의 대토번정책은 관련성이 없다고 본다. 검모잠은 670년 4월에 거병한 것이 아니라 669년 5월 실시된 사민에 저항하여 거병하였기 때문이다.

45) 조인성,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의 전개』, 『고구려의 정치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2007.

46) 정구복·노중국·신동하·김태식·권덕영 주석,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 주석편(하),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267쪽.

곳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의 과제로 삼고 여기서는 검모잠이 王都인 평양이 아니라 지방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서 검모잠이 소지한 大兄이라는 관등을 통해 고구려 사회에서 그의 정치·사회적 위상을 추정할 수 있다. 7세기 고구려 관등 조직은 12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중 대형은 7위에 해당한다.⁴⁷⁾ 대형 관등 소지자가 취임할 수 있는 관직으로 末若이 있었다.

- D. 高麗記에 이르기를 ... 그 武官으로 大模達이 있는데 衛將軍에 비할 수 있으며 莫何邏繡支 또는 大幢主라 한다. 皂衣頭大兄 이상이 취임한다. 그 다음으로 末若이 있는데, 中郎將에 비할 수 있고, 일명 郡頭라 하며, 大兄 이상이 취임하며, 1천인을 거느린다. 그 아래에 각각 등급이 있다(『翰苑』 蕃夷部 高麗 所引「高麗記」).

『翰苑』에 인용된 「高麗記」는 641년 내정 정찰을 목적으로 당에서 고구려로 파견된 陳大德이 귀국 후 작성한 보고서로서 7세기 중반 고구려의 정치기구·지리 정보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고 평가된다.⁴⁸⁾ 여기에는 大模達(莫何邏繡支, 大幢主)－末若(郡頭)－이하 등급⁴⁹⁾이라는 7세기 고구려 중앙군의 편제가 보이고 있으며, 각 무관이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이 규정되어 있어 일찍부터 주목받았다.

특히 대형 이상 관등 소지자가 임명될 수 있는 말약의 異稱이 郡頭라는 점에서 유의된다. 군두는 지방통치단위인 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명칭으로서 군에 파견된 지방관명으로 추정되기도 하며 또는 말약이 무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군 단위 지역에 주둔했던 지방군의 지휘관으로 볼 수도 있다.⁵⁰⁾ 고구려에서는 군사

47) 임기환, 「4~7세기 관등제의 전개와 운영」, 앞의 책, 204~217쪽.

48) 吉田光男, 「『翰苑』 註所引『高麗記』について」, 『朝鮮學報』 85, 1997.

49) 무관직을 대모달-말약-영천인급 지휘관-당주로 나누고, 말약을 1,000~10,000명을 지휘하는 군관직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신광철, 고구려 남부전선의 지휘관과 군사편제, 『韓國上古史學報』 74, 2011).

제도와 지방제도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고 특히 지방관은 민정권과 더불어 군정권도 함께 지니고 있어 해당 지역의 지방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⁵¹⁾ 무관직인 말약이 지방관명인 군두라는 이칭으로 불러 질 수 있었다. 중앙군 무관으로서 천 명으로 구성된 단위 부대를 지휘하는 관직이 말약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지방군을 지휘하는 자를 군두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면, 검모잠은 대형 관등을 지니고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으로서 동시에 그 지역의 군대를 통솔하는 군사지휘관으로 활동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서도 방증될 수 있다. 고구려에서 대형 관등을 소지했던 인물들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담당했던 지방관으로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⁵²⁾ 대표적으로 봉상왕대 新城率로서 신성 일대를 관할하고 있던 중 慕容廆의 침입을 물리친 공으로 小兄에서 大兄으로 승진한 高奴子⁵³⁾와 5세기 초 令北夫餘守事를 역임한 牟頭婁의 선조 중에 북부여지역을 통치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大兄 冉牟, □道の 城民과 谷民을 통치했던 □□大兄과 慈□大兄⁵⁴⁾, 「충주고구려비」에 보이는 古牟婁城守事 大兄 耶□⁵⁵⁾가 있었다.

50) 황병선, 「고구려 무관직의 등급과 임무」, 『역사과학』 1983-3, 1983, 44쪽; 노태돈, 앞의 책, 268쪽; 임기환, 앞의 책, 243쪽.

51) 노태돈, 앞의 책, 248쪽; 김현숙, 『고구려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2005, 389~390쪽; 임기환, 「지방·군사제도」, 『한국사』 5, 국사편찬위원회, 1996, 181~182쪽. 고구려 지방군의 편제, 운용, 병졸집단의 구성 등이 지방통치조직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구려는 전 영역이 군사조직으로 짜여있는 兵營國家의 면도를 지녔다(이문기, 「7세기 고구려의 軍事編制와 運用」, 『고구려연구』 27, 2007, 175~178쪽).

52) 박인호, 濶達을 통해 본 6世紀 高句麗 貴族社會, 『韓國古代史研究』 36, 2004, 241~242쪽. 고구려 관등은 크게 兄係와 使者係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관이나 부대장으로 나간 인물들의 관등은 모두 형계였다(노태돈, 앞의 책, 476쪽).

53) 『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烽上王 2年 8月.

54) 牟頭婁墓誌銘; 武田幸男,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權, 『朝鮮學報』 99·100, 1981; 김현숙, 앞의 책, 274~276쪽 및 282~283쪽.

그리고 검모잠과 유사하게 고구려 후기 지방 출신으로 대형 관등을 소지한 인물로 柵州都督兼總兵馬를 역임한 李他仁의 祖父 福鄒가 있다.⁵⁶⁾ 복추가 어떠한 관직을 역임하였는지는 미상이다. 그렇지만 이타인 가문이 柵城 일대를 기반으로 하면서 여러 대에 걸쳐 활동했던 고구려 지방세력으로 추정되고,⁵⁷⁾ 이타인이 柵州都督兼總兵馬로서 고구려의 12州와 靺鞨 37部落을 관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先祖들도 책성 일대의 지방관 혹은 무관으로 활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한다면, 이들과 동일하게 대형 관등을 가지고 있던 검모잠도 지방관으로서 지방군의 군사지휘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 멸망 당시 검모잠이 실제로 지방관으로 주재했던 곳은 그가 남하를 시작한 窮牟城일 것이다. 고구려 후기 지방관으로는 褥薩, 處閭近支, 可邏達, 婁肖가 있었다.⁵⁸⁾ 이 중 욱살은 최고위 지방관으로서 대체로 위두대형 이상의 관등을 소지해야 임명될 수 있었으며, 그 아래의 지방관인 처려근지는 대형 이상 관등 소지자가 임명되었다.⁵⁹⁾ 그렇다면 검모잠은 궁모성의 처려근지일 가능성이

55) 「충주고구려비」, “太古鄒加共軍至于□□□于□□牟婁城守事下部大兄耶□”.
 56) 「李他仁墓誌銘」, “君諱他仁本遼東柵州人也 … 祖福鄒本朝大兄 父孟眞本朝大相 … 于時授公柵州都督兼總兵馬管一十二州高麗統三十七部靺鞨”.
 57) 윤용구, 「중국출토의 韓國古代 遺民資料 몇 가지」, 『韓國古代史研究』 32, 2003, 309쪽; 안정준,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生涯와 族原」, 『목간과 문자』 11, 2013, 217쪽.
 58)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체제와 地方官의 위계에 대해서는 임기환,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49~157쪽; 노태돈, 앞의 책, 242~266쪽; 김현숙, 앞의 책, 345~378쪽; 나동욱, 「6~7세기 고구려 지방군사 운용체계」, 『史學研究』 95, 2009, 6~20쪽 참조.
 59) 임기환은 고구려 후기 지방통치체제를 욱살-처려근지-루초의 3단계로 파악하고, 각 지방관이 취임할 수 있는 관등을 위두대형 이상-대형 이상-소형 이상으로 파악하였다(임기환, 앞의 논문, 151~154쪽). 다만, 645년 당 태종이 안시성을 포위, 공격했을 때 15만 군사를 이끌고 출전한 북부 욱살 고연수, 남부 욱살 고혜진의 관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柵府元龜』 卷170, 帝王部, 來遠 眞觀 19年條에 의하면 고연수와 고혜진의 관등을 각각 위두대형, 대형이라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높다. 검모잠이 수림성 출신이라는 점, 대형 관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과 함께 고구려에서 대형 관등 소지자들의 활동상을 참고한다면, 검모잠은 여러 대에 걸쳐 요동 지방의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 혹은 무관으로 활동한 중급 지방 귀족 가문 출신⁶⁰⁾으로, 본인은 궁모성의 처려근지로서 궁모성의 민정과 더불어 군정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검모잠은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率衆叛]’고 한다(A-②). 『삼국사기』에는 ‘무리’를 ‘殘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B-①), 여기서 검모잠이 거느린 ‘무리’ 또는 ‘잔민’은 부흥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군사적 기반이었다.⁶¹⁾ 이는 신라와 당이 백제부흥

고혜진의 관등인 대형이 위두대형의 오기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임기환, 앞의 책, 242쪽). 그런데 『新唐書』·『舊唐書』 설인귀전에 따르면 당시 병력을 파견한 주체를 막리지로 기록하고 있다(이문기, 앞의 논문, 2007, 167쪽).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킨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고혜진과 고연수는 연개소문 정변에 속하는 인물로 추정된다(노태돈,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9, 93쪽). 아마도 정변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고연수는 관등이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위두대형 이상이 취임할 수 있는 육살에 임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60) 검모잠은 『신당서』 본기와 열전 등에는 鉗牟峯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宋代 편찬된 姓氏 자료집인 『古今姓氏書辯證』 권5에는 “箝耳 箝亦作鉗 西羌復姓也 狀周王季後爲虔仁氏 音訛爲箝耳”라 하여 羌族 출신인 鉗耳氏를 소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료에서 鉗耳氏를 강족으로 소개하고 있다(姚薇元, 『北朝胡姓考』, 中華書局, 1962, 324~326쪽). 北魏代 胡族의 復姓이 單姓인 漢姓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鉗耳氏는 王氏로 바뀌지만(『魏書』 권94, 열전82, 王遇 “王遇 字慶時 本名他惡 馮翊李潤鎮羌也 與雷党不蒙俱爲羌中強族 自云其先姓王 後改氏鉗耳 世宗時復改爲王焉”), 수·당대까지 鉗耳氏를 지칭하는 경우가 계속 존재하였다. 復姓을 單姓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直接減字인데(王盛婷, 『北朝刻胡姓改化姓氏詞初探』, 『西華師範大學學報』 2008-4, 2008), 비록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鉗耳氏를 減字하여 鉗氏로 일컬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4세기 이후 고구려로 이주하는 중국계 유이민이 다수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후시 검모잠의 先祖가 鉗耳氏를 칭했던 羌族의 후예로서 중국을 거쳐 고구려에 이주했던 자일 가능성은 없을까. 검모잠의 先代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으므로 이상의 추론이 설득력을 가지기는 어렵다. 후일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길 기대해본다.

- 61) 池內宏은 ‘殘民’을 당군과 교전한 결과 남은 敗殘兵으로 해석하였다(池內宏, 앞의 책, 429쪽). 검모잠이 남하 과정에서 당 관인과 승려 법안을 죽였다는 점에서

운동을 일으킨 백제유민세력을 지칭한 표현에서 방증될 수 있다. 복신과 도침이 주류성을 근거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무리[衆]’를 거느렸는데 이는 복신이 거느린 ‘병사[兵]’를 가리키는 것이었다.⁶²⁾ 그리고 신라는 신문왕 7년(687) 靑衿誓幢을 창설하였는데 이는 百濟殘民으로 구성되었다.⁶³⁾ 이러한 용례를 통해 볼 때 검모잠이 이끈 ‘무리’와 ‘잔민’을 일반 백성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고구려 부흥군으로 파악해야 한다.

부흥군의 주축은 고구려 멸망 이전 궁모성에 주둔하고 있었던 지방군을 기반으로 하였을 것이다. 고구려 지방군의 편제는 당시 지방통치조직과 일체화되어 있었으며 운용 면에서 지방관이 지휘관으로 기능하며 병졸집단의 주력은 토착 주민으로 구성된 城兵이었다.⁶⁴⁾ 고구려 멸망 이전 검모잠은 궁모성의 지방관으로서 지방군을 이끌었으며, 검모잠과 궁모성 주민은 군사지휘체계를 매개로 결합했던 경험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검모잠이 고구려부흥군을 조직·운용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⁶⁵⁾

검모잠 세력은 일정한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이정빈, 앞의 논문, 139쪽, 주34).

62) 『舊唐書』卷199, 列傳149, 東夷 百濟 “百濟僧道琛舊將福信率衆 據周留城以叛”;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百濟 “璋從子福信嘗將兵 乃與浮屠道琛據周留城反”.

63) 『三國史記』卷40, 雜志9, 職官 下 “九曰靑衿誓幢 神文王七年以百濟殘民爲幢衿色靑白”. 靑衿誓幢을 구성한 百濟殘民을 웅진도독부 지배 하의 백제민으로 추정하기도 한다(노중국, 신라 통일기 九誓幢의 성립과 그 성격, 『韓國史論』 41·42, 1999, 196쪽).

64) 이문기, 앞의 논문, 2007, 175~178쪽.

65) 고구려 멸망 전 궁모성에 존재했던 지방군이 그대로 부흥군으로 조직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요동지역은 수·당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무대였으며 고구려 유민에 대한 강제 사민의 주요 대상이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피해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盧泰敦, 渤海 建國의 背景, 『大邱史學』 19, 1981).

4. 당군의 대응과 요동·요서지역 고구려 유민의 동향

검모잠의 거병 사실을 기록한 중국 측 사료(A-①, ②, ③)에는 검모잠이 거병한 지역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검모잠이 궁모성으로부터 패강 남쪽에 이르러 당 관인을 죽였다고 한다(B-①). 궁모성은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데, 패강 즉 대동강 남쪽에 이르러 당 관인을 살해했다는 점 때문에 검모잠이 평양 인근 지역에서 거병했다고 인식되어 왔고, 지금까지 궁모성을 한반도 내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런데 최근 이를 비판하며 검모잠이 변경을 침입했다고 인식되었다는 점과 당의 행군명이 일반적으로 원정 목적지를 나타낸다는 점⁶⁶⁾에 착안하여, 검모잠의 거병지가 요동지역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⁶⁷⁾ 사료 A-③에는 검모잠이 반란을 일으켜 변경을 침입하자 당이 고간과 이근행을 東州道行軍總管과 燕山道行軍總管으로 임명하여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동주도는 요동지역을, 연산도는 요서지역을 가리킨다고 지적하였다. 東州는 요동주의 준말로 파악되므로⁶⁸⁾ 고간은 요동지역으로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括地志』⁶⁹⁾에 따르면 연산은 幽州

66) 北周 말 行軍制度가 전시출정제도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행군명은 出征戰區 혹은 작전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하였고, 이는 수당대에 정례화 되었다(孫繼民, 앞의 책, 6~7쪽).

67) 이상훈, 앞의 논문, 2014, 67~72쪽.

68) 김종복, 「高句麗 멸망 이후 唐의 지배 정책-安東都護府를 중심으로-」, 『史林』 19, 2003, 15~16쪽; 『발해정치외교사』, 일지사, 2009, 29쪽.

69) 『括地志』는 당 태종의 아들인 魏王 泰의 주도로 편찬된 官撰 地志로서 641년 완성되었다. 상고로부터 남북조 시대에 이르는 지명이나 행정단위 명칭의 변화를 고증하여 정리한 책으로 현재는 그 殘文이 『史記正義』, 『通典』, 『太平御覽』, 『太平實字記』, 『玉海』 등에 인용되어 전해지고 있다(李文基, 泗泚時代 百濟 前內部 體制的 運營과 變化, 『百濟研究』 42, 2005, 67~68쪽).

漁陽縣 東南 60리에 위치한다고 하므로⁷⁰⁾ 현재의 北京 일대이다. 한편 『高麗圖經』에는 연산도로부터 육로로 가다가 遼河를 건너 동쪽으로 3,790리를 가면 高麗의 國境에 닿는다고 하였다.⁷¹⁾ 그러므로 연산도는 현재 北京 以東에서 遼河 以西에 이르는 길로 추정할 수 있다.⁷²⁾ 즉, 行軍名을 통해 보았을 때 고간은 요동지역으로, 이 근행은 요서지역으로 파견된 것이다. 이는 다음 사료를 분석하면 그 가능성에 무게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E-①. 大長 鉏牟峯이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高]藏의 외손 안순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고간을 동주도, 이근행을 연산도행군총관으로 삼아 토벌하게 하였다. 사평태상백 楊昉을 보내어 도망가고 남은 무리를 불러들이게 하였다. 안순이 鉏牟峯을 죽이고 신라로 도망갔다. 고간이 도호부의 치소를 요동주로 옮겼다(『新唐書』 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 E-②. 楊昉을 사평태상백으로 삼아 安東으로 보내 高麗餘衆을 안무하게 하였다. 이 때 고려 추장 鉏牟峯이 무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고 고간의 외손 안순을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조칙을 내려 左監門大將軍 고간을 동주도행군총관으로 삼아 병사를 이끌고 토벌하게 했다. 안순이 鉏牟峯을 죽이고 신라로 도망갔다. 양방과 고간이 비로소 안동도호부를 쳐서 빼앗아 평양성에서 遼東州로 옮겼다(『冊府元龜』 卷429 將帥部90, 拓土 楊昉).

E-①에서 고간, 이근행과 더불어 楊昉⁷³⁾이 함께 고구려 고지로

70) 『史記』 卷4, 周本紀4 “封召公奭於燕. <括地志云 燕山在幽州漁陽縣東南六十里>”. 이는 『史記』 周本紀에 장수절이 주석을 덧붙이면서 괄지지를 인용한 부분이다.

71) 『高麗圖經』 卷3, 城邑 封境 “其國在京師之東北 自燕山道陸走渡遼 而東之其境 凡三千七百九十里”.

72) 이상훈, 앞의 논문, 2014, 70~71쪽.

73) 楊昉은 보장왕의 잘못이며 670년 보장왕이 고간, 이근행과 함께 파견되었다는 주장이 있다(金秀美, 『熊津都督府 研究』,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128~129쪽). 그 근거는 670년 4월 당시 당의 사평태상백은 보장왕이었다는 것이다. 사평태상백은 용삭 2년(662)에 공부상서가 개칭된 것인데 천하의 百工, 屯田, 山澤에

과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E-②에서 양방이 安東으로 가서 고구려 유민을 안무했다는 것이다. 이는 양방이 과견된 곳이 평양성에 설치된 안동도호부임을 의미한다. 고간과 이 근행은 군사를 동원하여 고구려부흥세력을 토벌한데 비해, 양방은 ‘도망가고 남은 무리를 불러들였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평양 지역에서 고구려 유민의 동요를 예방하고 반당항쟁이 확산되는 것을 저지하는 활동을 전개했을 뿐이었다. 이는 양방이 과견된 평양에서는 고구려 유민의 군사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검모잠의 활동 무대가 평양지역이 아님을 시사한다.

양방이 맡은 역할은 이것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E-②에서는 고간과 양방이 안동도호부를 평양성에서 요동주로 옮겼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⁷⁴⁾ 670년 6월 검모잠이 평양 일대를 점령하자(B-①, ②), 더 이상 평양성이 안동도호부의 치소로 기능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때 양방은 안동도호부 관하의 관리들을 철수시키는 등 평양성에서 요동지역으로 안동도호부를 옮기기 위한 작업을 시행하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관리들과 함께 당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정된다.⁷⁵⁾ 이후 동주도행군총관 고간이 안동도호로서

관한 정령을 관장하며, 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제척과 조명을 받들어 행하였다(『唐六典』卷7, 工部尙書). 보장왕이 당에 끌려가서 받은 관직이 바로 사평대상백이었다. 그러나 보장왕이 체수 받은 정확한 관직명은 사평대상백 원외동정이었다. 즉, 정원 외의 명예직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장왕은 실제 工部의 일을 맡지 않았고, 양방을 보장왕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

74) 이는 『資治通鑑』高宗 儀鳳 元年(676) 2月條의 주에 실려 있는 『資治通鑑考異』에 인용된 『實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 儀封 元年 2月 “徙安東都護府於遼東故城 考異曰 實錄 咸亨元年楊昉高侃討安舜 始拔安東都護府自平壤城移於遼東州”.

75) 당 태종의 후궁으로 越王 李貞의 어머니인 越國太妃 燕氏가 671년 7월 27일 사망하자 이 때 양방은 工部尙書로서 越國太妃를 昭陵에 陪葬하는 것을 監護하였다. 여기서 양방이 671년 7월 이전에는 당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周紹良·趙超 編, 「大唐越國故太妃燕氏墓誌銘」,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版社, 2001, 192~194쪽 “以咸亨二年七月廿七日薨於鄭州之傅舍 春秋六十有三 … 仍令工

요동성에 주재하면서 검모잠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 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검모잠의 거병에 대한 당의 대응 조치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이근행의 아들 李秀의 神道碑를 살펴보자.

E-③. 公의 諱은 秀이고 字는 玄秀이며 范陽人이다. ... 아버지의 이름은 謹行 府君인데, 左金吾衛大將軍이었다. ... 공은 어려서 英明하였고 장성해서는 특출났다. ... 18세에 이르러 요수를 건너 적은 군사로 적을 막았다. 북소리가 들리고 깃발이 보이는 것이 어지럽게 섞이고 겹쳤다. 공이 이에 홀로 나가고 홀로 들어가며 중횡으로 활약하였으며, □하여 활을 쏘고 견고함을 무너뜨리고 창을 돌려 마음대로 적을 사로잡았다. ... 開元 4년 4월 1일 나이 62세로 범양군 사저에서 죽었다.⁷⁶⁾(「李府君神道碑」)

신도비에 따르면 이수는 18세에 요수를 건너 전투에서 선봉으로 활약하면서 적을 격파하는데 공을 세워 유격장군에 배수되었다. 그가 開元 4년(716)에 62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으므로 672년에 18세의 나이로 요수를 건넜음을 알 수 있다. 이근행이 673년 윤5월 호로하 서쪽에서 고구려 유민을 격파하기 앞서 아내 유씨는 伐奴城에 남아 고구려와 말갈의 공격을 저지하였다.⁷⁷⁾ 이근행이 처와 함께 종군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이들도 함께 출정했다고 보는 것이

部尙書楊助監護 率更令張文收爲副 賜東園秘器 陪葬昭陵”；辛時代，「唐代安東都護府研究」，東北師範大學校博士學位論文，2013，61~62쪽). 그렇지만 670년 6월 검모잠이 평양 일대를 점거한 이후 양방이 계속 평양성에 머무를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그의 귀환 시기는 670년 6월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6) 岑仲勉, 『金石論叢』, 中華書局, 2004, 289~290쪽 “公諱秀 字玄秀 范陽人也 ... 考諱謹行府君 左金吾衛大將軍 ... 公幼而英明 壯而特達 ... 及二九渡遼 什伍禦寇 耳以金鼓 目以旌旗 紛紛紜紜 雜雜沓沓 公乃獨出獨入 一縱一橫 □飛鏃應弦以陷堅 迴戈隨手以包敵 ... 以開元四載四月一日 春秋六十有二 薨于范陽郡之私第”. 이수 신도비에 대해서는 馬馳(차오링 譯), 『『新唐書』李謹行傳 보충 및 고증』, 『한국고대사담구』 17, 2014, 168~170쪽 참조.

77) 『資治通鑑』卷202, 唐紀18, 高宗 咸亨 4年 閏5月.

합리적이다. 연산도라는 행군명과 李秀의 신도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근행은 670년 4월 아내와 아들 등 가솔을 이끌고 요서지역으로 출정하였다가, 672년 요수를 건너 요동지역으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⁷⁸⁾ 이는 672년 7월에서야 이근행에 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것과도 부합한다.⁷⁹⁾ 이후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은 한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고구려 부흥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신라군과 황해도 일대에서 충돌하게 된다.

한편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을 요동지역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약 2년의 시간을 지체하게 한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은 다음 묘지명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E-④. 君의 諱는 行節이고 □는 □該로서 太原人이다. ... 마침 靑丘가 명을 거스르고 玄菟에서 재앙이 솟구쳤다. 軍將 등이 공은 어려서부터 전쟁을 익혔고 일찍이 六韜三略에 능통하니 마침내 表를 올려 鷄林道判官兼知子營總管으로 삼게 하고, 또 아뢰어 공을 押運使로 삼게 하였다. 이에 배를 巨海에 띄우고 遼川에서 노를 저었는데, 바람이 일어나 물결이 요동치니 배가 부서지고 물에 빠졌다. 몸은 水府에 가라앉고 혼은 文德을 높이러 갔다. 그 변화의 자취의 때는 곧 唐 咸亨 2년이다⁸⁰⁾ (『大周故郭府君墓誌銘』).

상기 묘지명은 郭行節의 아들 思元이 어머니 유씨를 장사지낼 때 물에 빠져 죽은 아버지 곽행절의 혼백을 불러 함께 무덤을 만들면서

78) 岑仲勉은 672년 이수가 요수를 건넜다는 것은 호로하 전투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岑仲勉, 앞의 책, 299쪽). 그러나 호로하 전투는 673년 윤5월의 일로서 시기가 맞지 않아 따르기 어렵다.

79) 『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2年 7月 “秋七月 唐將高侃率兵一萬 李謹行率兵三萬 一時至平壤 作八營留屯”.

80) 周紹良·趙超 主編, 『大周故郭府君墓誌銘』,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版社, 2001 “君諱行節 □□該 太原人也 … 屬靑丘背命 玄菟挺災 軍將等以公早習戎昭 夙靜韜略 遂表公爲鷄林道判官兼知子營總管 又奏公爲 押運使於是揚舡巨海 鼓棹遼川 風起濤驚 船壞而溺 形沉水府 神往脩文 其化迹之時 卽唐咸亨二年之歲也”.

작성한 것이다.⁸¹⁾ 묘지명에 따르면 곽행절은 鷄林道判官 兼 知子營總管 및 押運使로 임명되었다가, 함형 2년(671) 풍랑을 만나 배가 부서져 물에 빠져 죽었다. 그의 관직을 분석해 보면, 신라정토군을 이끄는 계림도행군총관 설인귀 휘하에서 창고·무기·騎馬·防具 등을 관리하고 수송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를 지휘하였다.⁸²⁾ 이 자료에서 주목할 것은 곽행절이 물에 빠져 죽은 장소가 遼川이라는 점이다. 요천은 遼河를 가리키는데,⁸³⁾ 이로부터 곽행절은 군수 물자를 실은 배를 이끌고 요동지역으로 가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조난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로를 통해 보급을 시도하는 모습은 요동지역에서 활동 중인 당군에게 육로를 통해 보급을 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요서지역에서 당의 행정력이 온전히 발휘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음을 암시한다.⁸⁴⁾ 당군의 보급을

-
- 81) 권덕영, 「新羅 관련 唐 金石文의 기초적 검토」, 『韓國史研究』 142, 2008, 56쪽.
 82) 植田喜兵成智, 唐人郭行節墓誌からみえる羅唐戰爭-671年の新羅征討軍派遣問題を中心に-, 『東洋學報』 96-2, 2014, 129~131쪽.
 83) 植田喜兵成智, 위의 논문, 136쪽; 辛時代, 앞의 논문, 59쪽. 광승훈·권덕영·권은주·박찬홍·변인석·신종원·양은경·이석현 역주, 『중국 소재 한국 고대 금석문』,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658~659쪽에서는 遼川을 요동 일대 지역으로 보았다. 한편 곽행절이 풍랑을 만나 배가 침몰하여 사망했다는 표현은 망자를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한 표현일 뿐 사건의 실상은 671년 신라가 당의 운송선을 습격한 사건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리하여 문무왕 11년 신라가 당의 漕船 70여 척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사건(『三國史記』 卷7, 新羅本紀7, 文武王 11年 10月), 당 장수 조현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문두루 비법을 써서 배를 침몰시킨 사건(『三國遺事』 卷2, 文虎王法敏)과 동일한 것을 다르게 표현했다고 파악한다(권덕영, 『신라의 바다 황해』, 일조각, 2012, 174~176쪽). 그러나 이는 곽행절이 익사한 장소가 요하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84) 이와 유사한 사례가 王慶墓誌銘에 보인다. 고구려유민[高麗餘孽]이 遼川에서 전란을 일으키자 왕경은 수군을 이끌고 산둥지역[黃腫]을 출발하여 고구려고지로 향하였다. 한편 696년 5월 李盡忠이 영주를 점령하면서 요서 일대는 당의 통치력에서 벗어났는데, 이 때 왕경은 行登州司馬로서 南運使에 임명되어 요동지역으로 군량을 보급하였다(周紹良 主編, 『唐故朝議郎行登州司馬上柱國王府君墓誌銘』, 『唐代墓誌彙編』 上, 上海古籍出版社, 1992, 1249~1250쪽 “公諱慶字弘慶 東萊掖人. …時高麗餘孽 作梗遼川 詔徵舟師 濟自黃腫 丘君以公有深謀遠算 遂要在中監 同郗超之入幕 類田疇之出塞 閱賞酬庸 拜上柱國 軍罷 勅授昭武校尉 營州都督府瀋河鎮將

저지했던 세력은 이근행을 약 2년 동안 요서지역에서 묶어두었던 존재와 동일한 실체일 것이다. 여기에서 이근행이 요서지역으로 파견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669년 5월 당은 고구려 유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민을 단행하면서 요동 방면에 거주하는 유민은 영주를 경유하여 사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주에 정착하는 유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훗날 발해를 건국하는 대조영 일행이 대표적이다.⁸⁵⁾ 또한 營州城傍 高麗人 王思禮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영주성 인근에는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영주도독부의 지휘를 받으며 살았던 고구려인으로 구성된 군사집단이 존재하였다.⁸⁶⁾

영주와 더불어 유주에 존재했던 고구려 유민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은 645년 고구려를 공격하여 점령한 요동성, 개모성, 백암성을 각각 遼州, 蓋州, 巖州로 개칭하고, 회군하면서 세 주의 호구 7만 명을 중국으로 옮겼다.⁸⁷⁾ 이들 중 포로로 붙잡은 1만 4천명을 당 내지로 사민하면서 유주에 집결시켰는데,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당 태종은 회군하면서 유주에 이르러 고구려인들의 몸값을 錢과 布로 지불하고 그들을 백성으로 삼았다.⁸⁸⁾ 이 때 1만 4천명에 달하는 고구려인 대부분은 유주에 정착했을 것으로 추정

… 萬歲通天元年 白虜越起 鋒交碣石 靑林失律 火照甘泉 天子詔左衛將軍薛訥絕海長驅 掩其巢穴 飛薊輓粟 霧集登萊 … 俄除朝議郎行登州司馬 仍充南運使 恩命光臨 筋躬就列 情勤悅使 義薦均勞 紅粟齊山 飛雲蔽海 三軍歎美 僉曰得人 聖曆中運停還任”; 권은주, 鴻臚井石刻에 보이는 崔忻의 職名 재검토, 『韓國古代史研究』 46, 2007, 220쪽.

85) 宋基豪, 『渤海政治史研究』, 一潮閣, 1995, 25~26쪽.

86) 鄭炳俊, 「營州城傍高麗人」王思禮, 『高句麗研究』 19, 2005.

87)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 貞觀 19年 10月 “凡征高麗拔玄菟橫山蓋牟磨米遼東白巖卑沙麥谷銀山後黃十城 徙遼蓋巖三州戶口入中國者七萬人”.

88) 『資治通鑑』 卷198, 唐紀14, 太宗 貞觀 19年 10·11月 “諸軍所虜高麗民萬四千口 先集幽州 將以賞軍士 上愍其父子夫婦離散 命有司平其直 悉以錢布贖爲民 謹呼之聲三日不息 十一月 辛未 車駕至幽州 高麗民迎於城東 拜舞呼號 宛轉於地 塵埃彌望”.

되며 이들은 유주의 城傍으로 조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⁸⁹⁾

두 사례는 당 내지로 사민되는 과정에서 일부 고구려 유민들이 본래의 사회, 군사적 조직을 유지하면서 영주와 유주 일대에 정착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영주와 유주 일대에 사민된 고구려 유민들은 당의 지배에 맞서 군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들이 요서 일대에서 반당항쟁을 펼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이근행이 연산도행군총관에 임명되어 요서지역으로 파견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면 670년 당시 검모잠의 거병과 요서지역 고구려 유민의 동향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 각각 독자적 세력이 일으킨 개별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영주 일대가 변경 지역이기는 하지만 당의 지배 영역이었기 때문에, 두 세력 사이에 어떠한 사전 교감도 있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요동 일대에서 검모잠이 중심이 된 부흥운동이 먼저 발생하고 이것이 요서 일대로 비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요서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이 반당항쟁을 시작하면서 고구려 고지로 되돌아가기 위해 東走하려 했을 것이 분명하므로 당의 입장에서는 두 세력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두 세력이 사전에 계획하여 함께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관련 사료가 매우 부족하지만, 당 조정의 대응을 통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검모잠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책임자로 고간과 더불어 이근행이 함께 행군총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검모잠 세력의 진압이라는 파견 목적을 가진 이근행이 요서지역으로 출정

89) 정병준, 「唐朝의 高句麗人 軍事集團」, 『동북아역사논총』 24, 2009, 196쪽.

했다는 사실은 검모잠 세력과 요서지역의 고구려 유민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두 세력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당이 인식했다면, 이근행을 연산도행군총관으로 임명하면서 별도의 행군 파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사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즉, 당 조정은 요동지역의 검모잠 세력과 요서지역의 고구려 유민 세력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당은 ‘검모잠이 반란을 일으켜 변경을 침입했다’(A-③)고 인식하고 있었다. 요동지역에서 거병한 검모잠이 당의 변경을 침입했다면, 그 지역은 요서 일대를 상정하기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데 검모잠과 관련한 여러 사료에는 거병한 이후 남하하면서 펼친 활동만 보이고 있을 뿐 당의 영역을 침범했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변경을 침입했다’는 구절의 의미를 검모잠이 안동도호부 치소인 평양성을 점령하고 다시 고구려를 일으키려고 했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지만,⁹⁰⁾ 이는 검모잠의 거병 지역을 평양 인근으로 보는 입장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요서지역에서 발생한 고구려 유민의 반당항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요동지역의 검모잠 세력과 요서지역의 고구려 유민이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에 반당항쟁을 준비했다고 보면 ‘변경을 침입했다’는 구절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구려 멸망 이후 요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고구려 유민과 요동지역에 잔존한 고구려 유민 간에 상호 관계망이 존재했고, 이를 통해 사전 계획 하에 함께 반당항쟁을 일으켰다고 보면 어떨까 한다. 요서·요동 일대에서 대규모의 부흥운동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모종의 정보를 입수한 당 조정은 두 세력을 동일한 실체로 파악했으며, 이

90) 池內宏, 앞의 책, 432쪽. 이에 대한 비판은 이상훈, 앞의 논문, 2014, 67~68쪽 참조.

것이 검모잠 세력이 ‘변경을 침입했다’라는 인식으로 발전했다고 추정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추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 세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반당항쟁을 사전에 준비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의 西界를 요서 일대로 보는 최근의 견해에 주목하고자 한다. 요하 西岸을 따라 武厲邏를 비롯한 다수의 군사기지가 존재하면서 요서 경영의 거점으로 기능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⁹¹⁾ 현재 北鎮市 남쪽 寥屯鄉 大亮甲村 古城址로 비정되는 武厲城이 고구려가 요서에 세운 전진기지로서 최전선 군사 거점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⁹²⁾ 또한 7세기 중반 고구려는 요서 지역에 赤烽鎮과 같은 군사 시설을 촘촘하게 연결하여 운영하는 등 요서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고 보기도 한다.⁹³⁾ 즉, 6세기 말~7세기 고구려가 요서 일대에 城, 鎮, 邏 등 군사 시설 및 거점을 다수 설치하여 수·당과 군사적으로 대립하거나 거란·말갈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가 운영한 요서 일대의 군사 거점들은 ‘최전선 거점인 무려성-關所 기능을 맡은 다수의 邏-요동성’이 방어 체계를 구성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⁹⁴⁾

612년 수는 대규모의 군사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침공하였는데, 무려라를 빼앗아 그곳에 요동군과 通定鎮을 설치하였다.⁹⁵⁾ 그런데 645년 당의 이세적은 통정진에서 요수를 건너 현도를 공격하였다.

91) 이정빈, 「6세기 후반~7세기 초반 고구려의 서방변경지대와 그 변화」, 『역사와 현실』 82, 2011.

92) 李成制, 「高句麗의 西部 國境線과 武厲邏」, 『大丘史學』 113, 2013.

93) 정원주, 「7세기 고구려의 서계(西界) 변화」, 『영토해양연구』 8, 2014.

94) 李成制, 위의 논문, 2013, 16~23쪽.

95) 『資治通鑑』 卷181, 隋紀5, 煬帝 大業 8年 “是行也 唯於遼水西拔高麗武厲邏 <高麗置邏於遼水之西以警察遼東> 置遼東郡及通定鎮而已”.

수와 당은 요서 일대에 고구려가 설치·운영한 군사 거점들은 장악하고 이것들을 고구려 침공을 위한 군사 기지로 활용했던 것이다. 사료에서 확인되지는 않지만 요서지역의 다른 군사 거점도 마찬가지로 수·당에 의해 재활용되었을 것이고, 방어체계 및 이들을 거점으로 하는 교통로도 계속 이용되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실제로 696년 이진충의 난이 일어나고 乞乞仲象과 乞四比羽가 영주를 벗어나 고구려 고지로 돌아가는 경로로 통정진을 거쳐 현도성에 이르는 이른바 北道를 이용했으리라 추정된다.⁹⁶⁾ 이는 당시 고구려 유민들이 고구려 멸망 이전부터 사용하였던 교통로를 통해 요동지역으로 되돌아 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6세기 후반~7세기 고구려인들이 사용하였던 요동·요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가 고구려 멸망 후에도 계속 기능했다고 할 수 있으며, 요동지역의 검모잠 세력과 요서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은 이러한 교통로를 통해 접촉하면서 반당항쟁을 계획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적 연대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645년 유주에 방면된 고구려인들은 요동지역에서 붙잡혀온 자들이었으며 669년 실시된 사민에서도 영주지역에 남은 고구려 유민 또한 요동지역 출신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었다. 유주와 영주지역으로 사민된 고구려 유민들은 대다수가 요동지역 출신임이 확인되는 것이다. 검모잠과 요서지역 고구려 유민들 간에는 요동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호 연대 의식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⁹⁷⁾ 결국 검모잠은 고구려 유민 간의 친연성을 바탕으로 요서

96) 송기호, 앞의 책, 64~65쪽. 영주에서 요동으로 이르는 교통로는 燕軍城-汝羅守捉을 경유하는 남로, 회원진을 경유하는 중로, 통정진을 경유하여 현도성에 이르는 북로가 있었다(王綿厚, 唐“營州至安東”陸路交通地理考實, 『遼海文物學刊』 1986-1, 1986).

97) 더구나 검모잠이 거병한 궁모성이 개모성이라면(이상훈, 앞의 논문, 2014, 72~74쪽), 645년 개모성 출신으로 당에 끌려갔다가 유주에서 방면된 고구려인들은 특히 검

지역 고구려 유민과의 연대를 추진하였고,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인들이 이용하였던 요동·요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통해 반당 항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오고 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670년 초 군사활동으로 표출되었고, 당은 두 개의 행군을 파견하여 대응하였다. 비록 검모잠은 평양 일대로 남하하였지만 요서·요동지역에서 고구려 유민의 저항은 672년까지 지속되었다. <李秀神道碑(E-③)>와 <郭行節墓誌銘(E-④)>에서 관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요서지역의 고구려유민들은 이근행이 이끄는 당군과 672년에 이르기까지 대결하였고, 육로를 통해 요동지역으로 보급이 이어지지 못하게 할 만큼 세력을 떨쳤다. 그리고 신라를 토벌하기 위해 조직된 계림도행군이 요동지역으로 보내져야 할 만큼 671년 요동지역에서 고구려유민들이 당군을 압박하고 있었으며, 672년 이수가 요수를 건너 싸웠던 존재는 고구려부흥세력을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671년 7월 고간이 안시성을 점령하면서⁹⁸⁾ 요동지역에서의 부흥운동은 소멸되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李秀神道碑>를 통해 672년에도 요동지역에서 고구려유민의 반당항쟁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검모잠이 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서와 요동지역에서 반당항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검모잠이 유일한 부흥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未降城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요동지역에는 여러 고구려부흥세력이 존재하였고 검모잠은 그 중 하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검모잠이 남하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동지역에서 당군과 맞서는 군사활동이 전개될 수 있었고, 이들과 연계된 요서지역의 고구려유민들의 반당항쟁도 쉽게 당군에 진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모잠과 지연적, 혈연적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로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98) 『資治通鑑』 卷202, 唐紀18, 高宗 咸亨 2年 7月 “高侃破高麗餘衆於安市城”.

5. 맺음말

지금까지 고구려부흥운동에 관한 연구는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요동지역에서 발생한 고구려부흥운동이라는 관점에서 검모잠의 거병에 대해 고찰하였다.

668년 9월 당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고구려 고지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였다. 이에 고구려 유민들은 당의 지배정책에 맞서 거병하였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압록수 이북의 현황을 기록한 자료에 등장하는 미향성의 존재와 669년 5월 실시된 사민의 경로를 통해 볼 때, 요동지역에서 당군에 맞선 저항이 상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약 13만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민은 고구려유민의 저항을 촉발하였고, 그 대표적인 존재가 검모잠이었다. 그는 고구려 멸망 전 궁모성의 지방관으로서 지방군을 이끌었다. 검모잠과 궁모성 주민은 군사지휘체계를 매개로 결합했던 경험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고구려부흥군을 조직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 작용했다. 당이 고간과 이근행을 행군총관으로 임명하여 검모잠 세력을 진압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검모잠이 당의 변경을 침입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는 검모잠이 거병한 지역이 요동지역이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또한 요동지역에서 거병한 검모잠 세력과 요서지역으로 사민된 고구려유민들이 결합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들은 요동지역 출신이라는 친연성을 바탕으로 요동과 요서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로를 통해 반당항쟁을 계획하였다.

고구려유민의 군사활동을 진압하기 위해 고간은 요동지역으로, 이근행은 요서지역으로 파견되었다. 「이수신도비」와 「곽행절 묘지

명」을 통해 볼 때 672년까지 요동·요서지역에서는 고구려유민의 반당항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검모잠이 평양 일대로 남하하였지만 요동지역에는 여러 고구려부흥세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요동지역에서 반당항쟁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으며, 이들과 연계된 요서지역 고구려유민들의 군사활동도 672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검모잠이 요동지역에서 거병하게 된 배경과 그 기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에 따라 검모잠이 어떠한 이유로 평양 일대로 남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남하 이후 어떻게 안승과 접촉하게 되어 그를 국왕으로 세우게 되었는지, 요동지역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한성 일대에서 어떻게 부흥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지 못하였다. 검모잠의 남하 배경과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別稿를 통해 자세히 논해보고자 한다.

[원고투고일: 2016.4.1, 심사수정일: 2016.5.20, 게재확정일: 2016.5.23.]

주제어 : 고구려부흥운동, 검모잠, 안승, 궁모성, 요동지역, 요서지역, 고간, 이근행

<ABSTRACT>

Revival Movement of Koguryo in Liaodong Region and Kommojam

Kim, Kang-Hun

Koguryo(高句麗) was fell by Tang(唐) in september, 668 and the Andong Dohufu(安東都護府) was set up in the territory of Koguryo. The people of Koguryo took up arms against the rule of Tang. The Mihang castle(未降城) in Amnok river(鴨綠水) north of status data of Samkooksaki(三國史記) jiliji(地理志) and route of force immigration tell us resistance was strong in the Region of Liaodong.

Nearly 13 million of force immigration on a large scale prompted the resistance of people of Koguryo. Kommojam(劍牟岑) was the key person of the resistance against Tang. He commanded the local military forces as local governor of Kungmo castle(窮牟城) before fall of Koguryo. Kommojam and people in Kungmo castle had been experienced in that combined through a military command system. This became the base that organized the movement of revival military forces of the former Koguryo. Kommojam invaded the fringeland of Tang. It means that Kommojam who took up arms in Liaodong Region and the displaced peoples of Koguryo to Liaoxi(遼西) Region combined. They had affinity in the way that came from Liaodong Region and had planned resistance movement through route of communication of Liaodong to Liaoxi.

In response to this, Tang started to suppress Go Gan(高偁) and Lee Kun haeng(李謹行). Go Gan was dispatched to Liaodong, Lee Kun haeng was sent out to Liaoxi. Nevertheless, military activity of Koguryo people had continued to 672 in Liaodong and Liaoxi Region. Although Kommojam proceeded towards Pyongyang area,

there were numbers of Koguryo revival army in Liaodong Region. Therefore the military activities against Tang had held in Liaodong Region and resistance movement in Liaoxi which were concerned with that was not subdued without difficulty.

Key words : Koguryo Revival Movement, Kommojam, Ansung, Kungmo castle, Liaodong Region, Liaoxi Region, Go Gan, Lee Kun haeng

